



성경은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시 119:105)



루마니아 영적전투 24 시 기도 불침번: 일사분기를 마치며

빠체 보우어! (살아 계셔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루마니아를 가슴에 품고 영적 기도 전투로 함께 싸우시는 고국의 기도 불침번 전사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창수 나이 만 70 을 맞아 일사분기를 마치면서 30 년 전에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오순절 사도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과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성막”을 다시 열어보게 하시며 70 을 살아온 오늘의 창수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 구원 언약 성취”를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루마니아 선교 현장에서 총 사령관으로 오셔서 은식이와 창수의 삶을 하루 24 시간 통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식이와 창수가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삿 군은 아니었는지, 내 사역, 내 열정, 내 열심, 내 혼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주님을 매 순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Right Now/At this moment) 삶의 모습을 잘 살피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믿음으로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지구촌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구했는지 그래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주님과 친밀한 신혼 첫날밤을 매일 24 시간 지성소에서 주님의 몸을 만지며 주님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주님의 체온을 느끼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충만한 신의 성품으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사분기였습니다.

은식이와 창수가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달려온 일사분기는 아니었는지... 은식이와 창수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었다면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일사분기가 열매는 없고 ...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므너스띠레아 면 소재지의 사람들이 점점 더 그냥 약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집 짓고 수리하는데 올인하고 삽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사단이 구축한 핸드폰 문화의 노예로 전락해서 방콕을 즐기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의 영혼들을 긍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은식이와 창수가 말씀이 성육신화 되어서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을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죄와 사단과 세상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 신지를 증거로 제출하게 하옵소서. 살아 계신 주님을 저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 위해 떡상 앞에 무릎을 연하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했던 일사분기였습니다.

복음은 들을 수 있는 돌파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7 시에는 갯세마네 교회안에 주님과 성도 간의 연합을 위한 “함께 연합하는 저녁식사”(CINA UNITA- 치나 유니띠)에 초대를 해서 코로나 이후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방콕 집콕으로 핸드폰 문화의 노예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교회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들을 가슴에 다시 품고 해산의 고통으로 중보 했던 일사분기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전도의 문은 더 이상 열려 있지 않고 때가 되면 교회도 문을 닫을 날이 올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은식이와 창수가 지성소로 나아가 아버지를 대면하고 면소재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교회 문화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문화에 익숙한 면 소재지 주민들 한 가정 한가정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실재로 믿지는 않으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한국 음식이라는 흥미와 음식의 욕구 충족과 설레임을 통하여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 그 열기가 점점 불이 붙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한국 선교사가 면 소재지에 들어와서 한 평생 살다 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묵상했던 일사분기였습니다. 돼지고기 6 킬로 닭고기 6 킬로를 썰고 삶고 볶으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나가 되는 저녁식사” 하러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져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볶고 또 볶고... 아버지가 일하세요! 할렐루야!

10 년전에 열심히 교회를 들락거리던 코흘리게 아이들이 이제는 고 3 이되었고 대학생이 되어 있고... 저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저들의 바뀐 전화번호를 다시 입수를 하고 WhatsApp 과 메신저로 연결해서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저들의 삶이 생각이 24 시간 선교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긴긴 겨울이 지나고 화창한 봄날이 맞으면서 갯세마네 교회안에 청소년들을 겨냥한 배구의 열풍을 다시 불어넣고... “함께 하나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창수는 여지없이 “브레이 써 버 안떼르네즈 볼레이? 암 써 꿈빠르 도우어 제치 데 민자.” (Vrei sa va anternez volei? Am sa cumpar 20 de mingi de volei“) – “배구부 전지 훈련을 다시 시작할까? 내가 배구공 20 개 사올께” 로 질문을 던졌더니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로 화답을 하고... 갯세마네 집시 교회 소속감을 심어주는 도전을 다시 하고...





전도의 문을 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2024년 은식이와 창수가 지성소에서 아버지와 대책회의를 할 때에 그동안 코로나로 주춤했던 가정들과 성도들과 아이들의 가정방문과 구역예배로 친밀한 교제의 문을 열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신 레시피가 곧 한국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누라는 것... 은식이와 창수는 열심히 잡채를 해서 한 가정 한 가정 방문을 하고 함께 저녁을 저들의 집에서 나누며 교회로 발길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모두다 교회로 모여서 한국 음식을 나누며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힘쓰고... 2월에는 춘천 닭갈비 6킬로와 돼지고기 주물럭 6킬로를 창수가 자르고 손질하고 물에 삶고 다시 양념으로 옷을 입히고... 양배추 김치와 밥솥 2개 분량과 신컵라면을 나누며 교회 공동체로 결속을 다짐하고... 고3 아이들이 이구도성으로 목사님 노따 제제("Nota 10" 10점 만점)로 엄지 손가락을 내 보이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고맙지...

“아버지! 한국 음식 저녁 식사 초대가 결코 은식이와 창수의 열정과 열심이 앞선 혼과 육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식사 초대에 참석한 한 영혼 한 영혼이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가 일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갯세마네 집시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고 면소재지를 살려내는 빛의 도구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주세요.



7학년(중1) 짜리 가비는 처음부터 3층으로 접시를 채워서 가져가길래 “아 아들! 음식 충분하니까 남기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으면 안되겠니?”... 아니라 다들까 1층과 2층을 열심히 먹더니 결국 3층은 더 이상 못목겠다면 한사람 분량이 음식을 접시에 그냥 내 팽개쳐 놓고... 음식에 대한 탐심이 유난히도 많았던 가비가 그래도 매일 저녁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은식이와 창수에게 기쁨을 안겨주어서 백골난망이고... “야 아들! 너 한접시 못먹고 남겼으니가 벌금 20레이야?”...



첫번째 양자 삼은 아들 꼬스띠가 한국 음식을 너무나 좋아해서 2월에도 참석을 했고. 현재 대학 졸업반인 라비니아는 15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살아남기로 거리를 했었는데 남편이 마약 밀매로 현재 감옥에 들어갔고...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이처럼 잔인한데도... 라비니아가 믿음의 철이 들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복음의 사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첫 아들 꼬스띠가 속히 교회 생활로 돌아와서 루마니아 집시 사역 첫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갯세마네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두손모으고...



한 주간의 중간 팀 방학을 맞아서 오후 2시 - 4시까지 배구의 열을 올리고... 20년전에 양자 삼은 9명의 아들딸들과 3개월 여름방학 동안에 매일 3시간씩 농구와 배구 전지훈련을 했던 결과로 갯세마네 배구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었지만...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또 다른 세대로 담배와 마약과 술은 기본이고... 그래서 더더욱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를 어찌하든지 저들의 가슴속에 뿌리를 내리기를 밤낮으로 고민하며 지성소에서 아버지와 대책회의를 열고... 2월 한국 음식 저녁 식사를 마치고 중간 팀 한주간 배구의 열을 올렸던 것을 노에삼고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2시간 배구 전지훈련을 하기로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굳게 다짐을 해서 창수와 제이 선교사님은 배구공 20개를 사서 준비를 철저히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긍휼로 채우시고 고원하시고...



일년 365 일 매일 저녁 7 시에 모이는 중보기도 시간은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왜 사랑할 수 없는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는지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나누고 ... 그래서 회개하고 축복하고...



3 급 정신 장애자로 평생 연금을 받고 사는 믿음의 아들 부르슬리가 긴 긴 겨울을 수도 부카레스트 자기 집에서 보내고 갯세마네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3 월 중순에 이삿짐을 싸 들고 돌아왔습니다. “드라그 피울레, 암 네보이데 데 띠네 뽀뜨루 그러디나 루이 사모님 씨 오 싸빠”(Drag fiule, am nevoi e de tine pentru gradina lui Samonim sa-o sapa)(사랑하는 아들이 사모님 텃밭을 갈아 업으려고 하는데 나는 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삽으로 한번 뒤집어 얹어 놓으면 내가 잡초를 제거할 께.”...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대화가 시작되었고... 아들은 한 주간을 기도하며 땅 뒤집기 워밍업을 하더니 드디어 뒤집기 시작... 한 주간 내내 비가 조금씩 내려서 땅이 얼마나 질퍽이는지 무척 힘이 들었지만 끝내는 다 뒤집어놓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육체가 지쳤는지 아들이 하는 말이” 빠스토레 암 네보이데 데 고고시 코레아너.” (Pastore! Am nevoie de gogosi Coreeana)(목사님! 제가 호떡이 먹고 싶은데요 호떡 좀 만들어주세요.) ... 창수는 아들이 좋아하는 호떡을 열심히 구어서 한 주간 실컷 먹도록 밀가루 1 킬로를 반죽해서 속 집어넣고 후라이팬에 올려 놓으면 아들이 놀라서 열심히 구어내고... “아빠! 부르슬리를 공동체로 다시 보내주셔서 고마워! 부르슬리를 축복하시고 공동체에 머무는 동안 아빠를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창수의 기도는 눈물로 감사를 올리고... 2010 년에 소망교회를 섬겼을 때 세례 받은 영혼가운데 혼자 남은 부르슬리... 창수가 힘들어 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앤돌핀이 되어 주어서 눈물로 감사...



비가 멈추고 발이 충분히 마른 뒤에 한 주간은 다시 두 번째 뒤집어 얹어서 잡초를 제거하고 두둑을 만들어서 상추와 야채를 심어야 하고... 면 소재지 세례 교인들은 게으르고 또 게을러서 돈을 주지 않으면 교회 봉사를 꿈도 안 꾸고 있어서... 은식기와 창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갯세마네 세례 교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동구전선 루마니아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중보하시는 고국의 사랑하는 영적 기도 전사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위에 살아 계신 주님의 간섭하심과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이사분기를 시작하면서 부르슬리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3 시간만 “지도자 영성 훈련원 마무리 공사”에 전력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창수에게 힘을 주셔야 가능하고...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아버지가 지원해 주시고 필요한 인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무릎으로...

루마니아 오순절 사도 총회 교단 선교부에 갯세마네 집시교회 건물과 땅을 모두 기증을 약속했고 갯세마네 공동체에 현지인 사찰 가정(선교사 가정)을 파송해 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역자를 찾고 있어서... 아버지가 현지인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기를 무릎으로 무릎으로...

마라타타! 주님 곧 오십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하루하루 살아 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